

2013	3번
전공A문법	사술형

3. 다음은 중세 국어의 ‘ㅍ’와 ‘ㅍ’가 이중 모음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탐구 학습한 내용이다.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2)와 (3)에 준하여 (1)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3점]

학생의 질문	중세 국어에서 ‘ㅍ’와 ‘ㅍ’는 왜 이중 모음이었나요?
교사의 지도 방안	중세 국어에서 ‘ㅍ’, ‘ㅍ’로 끝나는 단어들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어떠한 형태 교체를 보이는지 주목하게 한다.
교사의 수집 자료	(1) 내해 <u>드리</u> 업도다 <u>梁은</u> 드리리라 불휘 기온 남근, 根은 불휘라 妖怪 ^로 된 새 오거나, 影은 <u>그르메</u> 라 (2) <u>스시</u> 에, <u>찌해</u> 디여 사스 ^미 <u>빅</u> 에 <u>여희</u> 여 <u>막대</u> 에 상커나, <u>찌해</u> 업데여 (3) <u>프를</u> <u>쉴</u> 오 안찌니 쉴을 무티면 <u>쉴</u> 이 <u>빅</u> 오 몸 아래 블 <u>내</u> 오, 히미 <u>세</u> 오

분석 내용	(1) _____ - (2) 부사격 조사 {예} 및 어미 {-어}와의 결합에서 체언 또는 용언 어간이 단모음 ‘이’ (스시, 다-) 또는 반모음 ‘ㅣ’ (빅, 여희-)로 끝나는 경우, 조사와 어미의 형태는 반모음 ‘ㅣ’가 더해진 ‘예와 ‘-여’로 나타난다. ‘막대’와 ‘업데-’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어미 {-고} 와의 결합에서 용언 어간이 ‘근’ (쉴-) 또는 반모음 ‘ㅣ’ (빅-)로 끝나는 경우, 어미의 형태는 ‘-기’ 탈락된 (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내-’와 ‘세-’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결론

중세 국어의 조사 및 어미 관련 형태 교체에서 공통적으로 ‘ㅍ’와 ‘ㅍ’가 반모음 ‘ㅣ’를 가진 이중 모음들과 함께 행동한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ㅍ’와 ‘ㅍ’는 반모음 ‘ㅣ’를 가진 하향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출문제가 곧 예상문제다! 기출문제 분석은 이렇게

※ 현대국어의 ‘ㅍ’와 ‘ㅍ’가 단모음에 해당하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정착된 것임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직된 학습자료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내용은 현대국어 단모음의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설계된 수업 계획의 일부라는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단모음 체계의 문제점은 7/8/9/10개로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가를 평가하는 문제, ‘ㅍ’나 ‘ㅍ’가 단모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ㅍ’, ‘ㅍ’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위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인 ‘ㅍ’와 ‘ㅍ’에 관한 문제로 현대국어에서 이들의 실질적인 발음이 ‘ㅍ’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학교문법의 ‘단모음 체계와 관련 단모음은 모두 10개라고 보는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 속에 조직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단모음체계와 단모음의 변천사, 이중모음 체계와 이중모음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소실문자에 관한 사항도 통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모음체계구분	15C	16C	17C	18C	19C	20C
단모음체계						
이중모음체계						

구 분	15C	16C	17C	18C	19C	20C
단모음						
이중모음						
ㅍ, ㅍ						
ㅍ, ㅍ						
ㅍ						
소실문자						

※ 관련된 음운의 로마자 표기법도 정확하게 정리해 두자

①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이 내용은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국어 생활의 토대가 됨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자신의 국어 생활에 적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를 길러 주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과 의의,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관계,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실제 규정 등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도록 한다. 첫째, 공적 언어생활에서의 표준어와 사적 언어생활에서의 방언의 관계는 상호 존중의 관계임을 기본 태도로 하여, 그런 인식 위에서 표준어 구사 능력 함양의 기초로서 표준 발음법 학습이 필요함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국어의 음운 체계 및 규칙과 관련시키고 표준어 규정의 사례와 연계하여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표준 발음법을 단순히 암기하는 지식으로만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음성학적인 원리를 도입, 지도해야 한다. 셋째, 표준 발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표준어 구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부터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밖에 표준 발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표준 발음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 찾기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채점요소

- 1) ‘드리’와 같이 체언이 단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 주격 조사 {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가 {∅}로 실현된다(1점)
- 2) ‘불휘’와 같이 체언이 반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 주격 조사 {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가 {∅}로 실현된다 (1점)
- 3) ‘새 나 ‘그르메’와 같이 체언이 반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 주격 조사 {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가 {∅}로 실현된다 (1점)

모범답안 < 원칙적으로 ‘ (2)와 (3)에 준하여 (1)의 내용을 서술하시오’라는 문항의 조건에 유의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드리’와 같이 체언이 단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 주격 조사 {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가 {∅}로 실현된다. ‘불휘’와 같이 체언이 반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나 ‘새 나 ‘그르메’와 같이 체언이 반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초·중성 체계의 변천사 약속			
	15세기		현대 국어
초·중성 체계의 변천사	28자모 체계 (17+11)	1. ㅍ / ㅍ / ㅍ / ㅍ 2. 합용 병서에 관한 정리	24자모 체계
	34자모 체계 (23+11)		40자모 체계
• 중성 체계의 변천사	단모음 (7)	1. ‘ . ’의 음가 혼란 2. ㅍ / ㅍ / ㅍ / ㅍ 변천 3. ‘의’의 성격 규정	자음/ 19개
			모음/ 21개 단모음 10 이중모음 11

- ※ 정확한 발음을 위하여 모음 사각도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기출문제 참고)
- ※ 단모음 체계의 문제점, 사적 고찰을 통해 탐구할 것 (기출문제 ‘ㅍ, ㅍ’의 경우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문제라는 점에 유의)
- 7차문법교과서의 문제는 ‘ㅍ’와 ‘ㅍ’, ‘ㅍ’와 ‘ㅍ’의 문제점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 현대의 문법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유보한 상태라는 점에 유의하며 정리해 나갈 것)
- ※ 이중모음 체계의 문제점, 사적 고찰을 통해 탐구할 것 (이중모음의 개념, 반모음[활음]의 종류, 이중모음의 변천사에 대한 사적 고찰)
- 7차 문법교과서에서는 이중모음 체계의 문제점을 ‘ㅍ’를 중심으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통시적인 관점에서 문제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중요. 특히 방언학의 관점에서 ‘ㅍ’의 표준발음과 각 지역에서 ‘ㅍ’를 발음하는 양상을 추적하여 반모음(활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리요 (별첨 자료참고)

초·중성체계의 변천사 (기출및예상)									
구 분	음 운	후기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16C	17C	18C	119C	20C	21C	
초성체계	△								
	○								
	◡								
	각자병서	ㅎㅎ							
		ㄴㄴ							
		ㅇㅇ							
	합용병서	나머지							
		ㄴ계열							
		ㄷ계열							
ㅁ계열									
단모음체계	ㅏ								
	ㅑ								
	ㅓ								
	ㅕ								
	단모음체계 탐구학습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에 대한 학설	10개	9개	8개	7개			
이중모음체계	이중모음 정의								
	반모음의 정의								
	이중모음	계열							
		계열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ㄱ’	ㄱ							
		경상도							
		전라도							
중부권									
표준발음									

2010년 기출문제

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규정한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표기법을 분석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ㅗ	ㅛ	ㅜ	ㅠ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 'ㅗ', 'ㅛ'의 로마자 표기 'ae', 'oe'는 'ㅗ', 'ㅛ' 각각에 대립하는 후설 모음의 로마자 표기를 포함한다.
- 'ㅑ', 'ㅓ' 각각에 포함된 단모음은 동일하지만 로마자 표기 'yeo', 'wo'에서는 단모음을 다르게 표기한다.
- 'ㅕ'의 로마자 표기 'yae'는 이 이중 모음이 반모음과 단모음 'ㅗ'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 'ㅑ', 'ㅓ'의 로마자 표기 'ye', 'we'는 이 이중 모음들의 차이가 반모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ㅕ'의 로마자 표기 'ui'는 이 이중 모음이 '단모음+반모음'의 순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2014년 문제해설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로마자 표기법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 역시 특정시기의 문법 현상을 반영한 규칙으로 이미 로마자 표기법 안에 현대 국어 단모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중모음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 역시 현대국어의 언어현상(문법현상)을 다루고 있는 규칙으로 외래어 표기 원칙이 실상은 외국어(특히 로마자)와 구별되는 국어의 음운론적 특징(특히 제약)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더나가 현대 국어에서는 이미 진행되지 않거나 약화된 음운현상을 외래어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정리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항목이나 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2012년 기출문제

20. <보기>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조항의 일부이다. 각 조항에 대해 교사가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ㅊ ㅋ ㆁ ㅍ ㅎ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ㅗ ㅛ ㅜ ㅠ ㅡ ㅣ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ㅏ', 'ㅑ'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로,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제2항: 자음의 배열 순서는 조음 위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 제4항, 제5항 [붙임]: 현대 국어 단모음 체계는 최대 10모음 체계, 최소 8모음 체계이다.
- 제5항, 제4항 [붙임]: 국어의 이중 모음 목록은 최소 11개, 최대 12개이다.
- 제5항 '다만 2': 자음과 이중 모음 'ㄹ'의 연쇄를 피하려는 제약이 있지만, 이 제약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 제5항 '다만 4': /-ㄴ/가 하향 이중 모음으로 실현될 때와 상향 이중 모음으로 실현될 때의 차이이다.

이 문제 역시 현대국어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문제점을 <로마자 표기법>이 아니라 <표준발음법>으로 학습 자료를 바꿔 놓았을 뿐 여전히 묻고 있는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기출문제

15. (가)와 (나)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분류 기준에 따라 도표화한 것이다. (가)에서 (나)로의 변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ㅏ	ㅑ	ㅓ		ㅏ	ㅑ	ㅓ
[+ㅏ]		ㅏ	ㅑ		ㅏ	ㅑ	ㅓ
[-ㅏ, -ㅑ]	ㅏ	ㅑ	ㅓ	ㅏ	ㅑ	ㅓ	ㅓ
[+ㅑ]		ㅑ	ㅓ		ㅑ	ㅓ	ㅓ

- 입술 모양에 의해 대립하는 모음의 수가 더 늘어났다.
- 'ㅏ' : 'ㅑ'의 이원적 대립이 모든 단모음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 입술 모양에 따라 'ㅏ'와 대립하는 모음이 'ㅑ'에서 'ㅓ'로 바뀌었다.
- 모음 조화에 참여하는 모음들의 대립이 모음 체계와 부합하게 되었다.
- 'ㅓ'에 의해 대립하던 'ㅏ'와 'ㅑ'가 'ㅓ' : 'ㅑ'의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

이 문제 역시 현대 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문제점을 모음 체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자료로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핵심이론
최종정리
3주완성**

백한빛 선생님과 함께 하는 최종 합격 프로젝트 01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에 기초한 강의로
 지난 강의 중 엄선된 영역별 핵심 강의!
 1주차 교과교육론[표현/이해영역]
 2주차 문법교육론 / 국어사교육론
 3주차 갈래교육으로서의문학사교육
수강료
10만원

**08월 05일
개강
에듀한빛**
수강신청문의
042-584-5331

**3
개
월
완
성**

08월
 정직한 답안작성으로 40점 올리기
 14~16년기출문제해설
 [출제예상영역 총정리]

09월
 적중동형모의고사 (6회)

10월
 최종마무리 단기특강

모음체계의 변천사

중성 - 상형, 합성의 원리

이름

상형

혀(舌)

소리(聲)

-

하늘을 본뜬

혀를 오므림

소리가 깊음

-

땅을 본뜬

혀를 조금 오므림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

사람을 본뜬

혀를 안 오므림

소리가 얕음

1.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

발음 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는 모음

이중모음

발음 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으로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4. 중성의 제자원리

2. 초출자

이름

특징

보기

초출자

'ㅏ'가 하나만 쓰임

ㅏ, ㅑ, ㅓ, ㅕ

재출자

'ㅑ'가 둘이 쓰임

ㅑ, ㅓ, ㅕ, ㅠ

합용자

동출합용자

초출자끼리, 재출자끼리 합한 것

ㅑㅓ, ㅓㅕ

합용자

'ㅏ'합용 일자 중성

중성자 하나가 'ㅏ'와 합한 것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합용자

'ㅑ'합용 이자 중성

중성자 둘이 'ㅑ'와 합한 것

ㅑㅓ, ㅓㅕ, ㅕㅠ

3. 단모음의 체계

중성 11자 체계 : 단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이 11자 중에서 제자의 기본자는 'ㅏ, ㅑ, ㅓ'의 셋이고 이들은 각각 '天, 地, 人'을 상형한 것이다.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초출자, 재출자 역시 'ㅏ, ㅑ, ㅓ'와 'ㅏ, ㅑ, ㅓ'합성(合成)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모음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合成)이다. 단 해례본에서 위 11자는 독립된 문자로 취급되므로 합용자(合用字)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라.

3. 이중모음의 체계

철저하게 정리 - 특히 'ㅏ'와 'ㅑ'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중모음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도 정리

5. 중성의 제자원리

중성 - 따로 만들지 않음,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중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終聲復用初聲)는 규정은 주시경 이래 모든 초성은 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 왔으나, 훈민정음 해례본에 중성은 8자로 충분하다는 규정(八終聲可足用法)이 있음을 알고부터는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기타

초성 체계의 변천사

15세기

28자모 체계 (17+11)
34자모 체계 (23+11)

중성 체계의 변천사

단모음 (7)

소실문자 / 이중모음 → 단모음으로

1. ㅏ / ㅑ / ㅓ / ㅕ

2. 합용 병서에 관한 정리

1. 'ㅏ, ㅑ'의 음가 혼란
3. 'ㅑ'의 성격 규정

2. ㅏ / ㅑ / ㅓ / ㅕ

현대 국어

24자모 체계

40자모 체계

자음 19개

모음 21개

단모음

10

이중모음

11

단모음체계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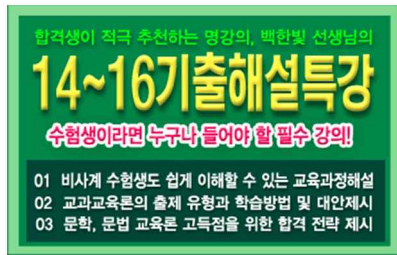
이중모음체계탐구

모음

ㅐ ㅑ	하향식 이중모음			18C에 단모음화	젊은층, 경기지역 중심으로 ㅐ, ㅑ의 음가혼란되기 시작하여 서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ㅓ ㅕ	하향식 이중모음				1933년에 ㅓ, 1988년에 ㅕ가 단모음화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이 중모음으로 화귀하는 발음현상을 보인다. 문법적으로는 단모음이냐, 안중의 언어적 관습에서는 아직 완전한 단모음화 되지 않은 것이고 진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발음이 공존하는 것이다. 제4항 'ㅏ ㅗ ㅛ ㅜ ㅠ ㅡ ㅔ'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ㅖ, ㅞ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ㅓ'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므로 로마자표기법에서는 각각 이중모음인 [we], [wi]로 표기.							
ㅗ		1단계 'ㅚ'의 음가 소멸로 둘째음절 이하의 'ㅚ'가 'ㅗ, ㅣ'로 바뀐다. 16C 입관후 상업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언어에서도 노력경제현상에 의한 간이화, 강화현상이 대두됨. 관형격조사 'ㅣ'의 발음 이지역방언에서 [ㅣㅣ]체로 발음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임.		2단계 'ㅚ'음가 소멸로 첫음절에서도 'ㅚ'로 바뀐다.	①'ㅚ'의 음가 소멸과 ②'ㅘㅙ'의 단모음화, ③'ㅓ, ㅕ'의 단모음화 겪으면서 중세의 하향이중모음체계 중 'ㅓ'만 홀로 남게 되어 현대국어에서 논란이 되었다. 'ㅓ'의 상향/하향 이중모음에 대한 처리가 논란이고 발음상의 논란도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절충안을 채택하여 단모음 'ㅗ'와 단모음 'ㅣ'의 결합인 수평적 이중모음으로 설정하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한글맞춤법 제5항의 원칙은 이중모음 그대로 [ㅚ]로 발음하는 것이나, 다만 규정을 두어 첫소리 자음과 결합하거나 첫음절 이외의 'ㅓ'는 [ㅣ]로 조사의 'ㅓ'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는 15~16C 당시 관형격조사 'ㅣ'의 발음과 관련하여 'ㅓ'가 발음의 편리성에 의해 지역방언에서 [ㅣㅣ]체로 발음되어 왔다는 안중의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음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ㅓ'의 음가혼란을 자생적변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ㅓ'의 변동은 이중모음 체계의 변천이라는 사적고찰을 결과, 언어적관습에 기초하여 발음의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안중의 심리 때문에 'ㅓ' 발음 자체 성격이 변화(약화)한 것이다.							
ㅘ ㅙ					제5항 'ㅏ ㅗ ㅛ ㅜ ㅠ ㅡ ㅔ'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ㅞ'는 [ㅞ]로도 발음한다. <table> <tr> <td>계집계: 집/계: 집</td> <td>계사대계: 시다/계: 시대</td> </tr> <tr> <td>시계시계/시계(時計)</td> <td>연계연계/연계(連繫)</td> </tr> <tr> <td>매별매별/매별(袂別)</td> <td>개폐개폐/개폐(開閉)</td> </tr> <tr> <td>혜택혜: 택/혜:택(惠澤)</td> <td>지혜(智)혜/지혜(智慧)</td> </tr> </table>	계집계: 집/계: 집	계사대계: 시다/계: 시대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매별매별/매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택/혜:택(惠澤)	지혜(智)혜/지혜(智慧)
계집계: 집/계: 집	계사대계: 시다/계: 시대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매별매별/매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택/혜:택(惠澤)	지혜(智)혜/지혜(智慧)												

오늘날 모음 체계에서 이러한 문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국어사적 관점 속에서 본다면 단모음 체계와 이중모음 체계의 변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모음은 발음시 혀와 입술이 고정되는 것, 이중모음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둘을 구분한다. 그러나 중세와 근대, 현대를 거쳐 오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서로 넘나들었기 때문에 언어의 언어적 관습이 여전히 고정되지 않고 진화해 가는 중이므로 그 발음상 변천을 겪지 않은 다른 모음들에 비해 음기에 혼란이 있는 것이다.

모음체계변천사	후기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15C	16C	17C	18C	19C	20C
단모음 체계	· [ɨ], [i], [ɛ], [e], [a], [ʌ], [u], [o] 7모음체계	16c 초기부터 ‘ㅜ’의 비음운화로 비어 두음절에서) ㄹ진행. 예) 나(ㄴ나) 나(ㄴ나), 기(ㄴ기) 기(ㄴ기), 조(ㄴ조) 조(ㄴ조), 브(ㄴ브) 브(ㄴ브)		[i], [e], [ɛ], [ɐ], [a], [ʌ], [u], [o] 8모음체계 ①18C 중엽에는 첫음절에서) ㄹ진행. 예) 마(ㄴ마) 마(ㄴ마), 가(ㄴ가) 가(ㄴ가), 래(ㄴ래) 래(ㄴ래) ②ㅜ의 단모음화 후기중세의 [ɔi/ai]가 [e/ɛ]로 됨.		[i], [e], [ɛ], [ɐ], [a], [ʌ], [u], [o], [ɔi], [ai] 10모음체계 ①ㄴ, ㄹ의 단모음화 -ㄴ: 1933년/ [uj > y] -ㄹ: 1988년/ [oj > ɸ]

	① 중세국어에는 하향이중모음이 ‘ㅙ, ㅞ, ㅟ, ㅢ, ㅤ’로 현대국어보다 훨씬 많았다. 이 중 ‘ㅙ ㅞ ㅟ ㅢ’가 근대와 현대국어 시기에 단모음화하고, ‘ㅤ’는 ‘ㅇ’의 비음운화로 ‘-ㄹ/ㅙ’로 통합되거나 음가가 소멸했다. 그러나 이중 ‘ㅢ’만 남아 현대국어에서 이중모음체계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② 최근 젊은 세대의 모음체계는 상당한 동요를 겪고 있다. 그 중 현저한 것은 경기방언 중심으로 전설모음 ‘애[ɛ]와 에[ɐ]의 구별이 모호해져 대체로 ‘ㅙ’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점이다. ※ 자생적 변동 중 ‘모음의 변동’을 정리해 둘 것				
이중모음 체계	1. 상향이중모음 ① y선행: ㅟ, ㅢ, ㅤ, ㅟ[ya, ya, yo, yu] ② w선행: ㅞ[wɔ], ㅢ[wɐ] 또한, 15C비가 wi로 바뀌어 주로 ‘위(uy)’로 표기 2. 하향이중모음 ① y후행: ㅢ, ㅙ, ㅞ, ㅟ, ㅢ, ㅤ		모음 ‘ㅢ’는 앞서 16C 1단계 소실을 겪고, 18C 후반 2단계 소실을 통해 완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ㅢ’의 소실로 이중모음‘ㅢ’가 ‘ㅙ’로 변하거나 소멸되고, 얼마 후 18C 말엽 이중모음‘ㅢ[ɔ], ㅢ[ai]’가 각각 [ɛ], [ɐ]로 단모음화함. ·결국, 이중모음체계는 • 상향이중모음(ㅟ, ㅢ, ㅤ, ㅟ, ㅢ, ㅤ) • 하향이중모음(ㅢ, ㅢ, ㅤ)	1. 상향이중모음 ① y선행: ㅟ, ㅢ, ㅤ, ㅟ ㅢ ㅤ ② w선행: ㅞ ㅢ ㅤ 2. 수평적이중모음(학교문법관점) • ㅢ	
	① 현재 서울말에서 ‘외’와 ‘위’의 발음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외(孤), 위(上)’와 같이 어두에 올 때는 [wɛ], [wɪ]로 발음되나, 자음 뒤, 특히 차음이나 구개음 뒤(쇠, 죄, 쉬, 쥐)에서는 [ɔ], [y]의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다시 이중모음화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② 또한 현대 정서법은 ‘ㅢ’를 인정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상향/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단모음+반모음/ 반모음+단모음이라는 이중모음의 기본전제 하에서 발음상 반모음이 뒤에서 소리나는 경향이 강하며, 중세부터 하향이중모음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하향이중모음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국어에서 ‘ㅢ’외에는 하향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이중모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음체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반모음이 선행하는 상향이중모음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국어에서 또다른 반모음 ‘ㅢ’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결국 두 관점 모두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절충하여 ‘ㅢ’를 단모음‘ㅢ’와 단모음‘ㅢ’가 만난 수평적이중모음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